

유대 민족이 그들의 후세들에게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기위하여 어떻게 애쓰는가를 들어 보자.

명 예 심

「한국인」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2>

어느 날 영리하기로 이름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다. 여우는 동물 중에서 꾀가 많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 여우는 바다속의 물고기들에게이렇게 소리쳤다.

『물고기들 여러분! 바다 속은 위험하니까 물에 올라 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또 큰 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 먹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육지에 올라 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대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갑론을박, 쯤처럼 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여우는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에서 부터 바다 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대립된다. 고기들은 오래 숙의를 거듭한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물고기 대표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 속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정 원식, 「머리를 써서 살아라」에서)

이 우화는 유대인의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 어린이들은 『물고기는 말라 죽어야만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거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다』라고 아버지는 일러 준다.

유대인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임을 부인하게 되면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여우가 물고기를 부르는 간사스러운 유혹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수 많은 박해를 이기면서 오늘도 당당한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지키고 산다.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야 유대인으로서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느 민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비록 박해를 받지만 그들의 역사가 자랑스럽고 그들의 역량이 뛰어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이름을 지킬 때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수난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역사도 그들의 역사에 못지 않게 수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숭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오면서도 오늘날까지 강토를 지키며 독자적인 문화 전통을 이루어 온 저력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강인성을 소유하였고 우리가 그 후예라는 사실에서만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조들이 이룩한 명예로운 이름에 「무임 승차」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훌륭한 조상을 가진 것은 자랑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강인성을 우리도 발휘하여야 하고 그들의 창조성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만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에게는 머지 않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뱅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붙여질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명예심과 긍지는 바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생활에서 유지된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이름을 중히 여기는 공명심의 소유자가 되거나, 자기 애착에만 빠지는 이기적인 자기애(自己愛)의 망상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다. 고유 명사로서의 나의 이름에 오명이나 악명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의 가정, 직장, 모교, 고장, 나라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훼손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 곧 자기를 귀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런 이름들은 나만의 이름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이름이고 겨레의 이름이다. 그 이름들을 더럽힐 때, 우리는 「어물전의 꼴뚜기」와 같이 이웃과 겨레를 망신당하게 한다. 「배신(背信)」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쓰이는 말이다.

꼴뚜기가 편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게의 다른 생선들과 격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과 겨레의 이름이란 다 함께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누구든지 그 격에 맞는 삶을 함께 살지 못할 때,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릴때, 그는 배신자일 수밖에 없다.

외국의 어느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마을에 적군에게 쫓기는 부상병이 숨어들었다. 그 부상병은 놀고 있던 한 아이에게 숨겨줄 것을 부탁한다. 아이는 짚더미 속에 숨도록 도와 준다. 잠시 후 총을 든 적군 병사가 아이에게 다가와 부상병의 행방을 묻는다. 아이는 고개를 저어 모른다고 잡아 댄다. 적군 병사는 가지고 있던 시계를 아이에게 건네주며 부상병이 숨은 곳을 가르쳐 달라고 달란다. 생전 처음 시계를 만져 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만 부상병이 숨은 짚더미를 눈으로 가리켜 준다. 결국 부상병은 적군의 손에 잡혀 가면서 아이를 배신자라고 원망한다. 마침 일터에서 돌아오다 이를 목격한 아이의 아버지는 총을 찾아 들고 잘못을 비는 아이를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간다. 잠시후 한발의 총성이 마을에 울린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부상병에 대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아이 자신의 명예와 아버지인 자기 명예, 그리고 마을의 명예, 나아가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배신자란 어느 사회에서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란 바로 부끄럽지 않은 나로서, 부끄럽지 않은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원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일이다. 이는 바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한국인이 되는 길이다.

몇 해 전, 어느 조그만 봉제 회사가 외국 상점과

어렵게 수출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주문받은 옷을 서둘러서 만들어 보냈다. 얼마 뒤 그 회사는 손해 배상 청구서와 함께 그 물건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 사연인즉, 단추가 허술하게 달린 옷이 있어서 물건을 사간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니 그 물건을 앞으로 팔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봉제 직공 한 사람의 「이 단추 하나 쫓아야」 하는 생각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만 셈이다.

공항에 내리면서 한국의 푸른 하늘에 「원더풀」을 외친 어느 외국인 여행자가 호텔에 가는 길에서 친절을 가장한 어느 청년에게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 하자. 물론, 이런 일 째은 세계의 대도시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의 머리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있다.

자정이 가까운 어느 번화한 거리의 뒷 골목에서, 한 외국 손님이 막 집을 챙겨 들어가려던 군밤 장수 할아버지한테서 500원 어치 군밤을 사고는 고액권 지폐를 내놓았다. 할아버지에게는 거스름돈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을 하고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외국 손님은 씩씩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할아버지의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상점들이 문을 닫아 잔돈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잔돈을 받아든 외국인은 그 돈의 반을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안 받겠다고 사양했다. 발길이 뜸한 한밤중의 골목길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인들의 사이에 정다운 싸움이 벌어졌다. 그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랑처럼 들려 주었고, 덕분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나라의 명예를 높이고, 지키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제각기 맡은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의 명예는 높여지고 지켜지는 것이다. 단추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는 직공, 성실과 친절로 봉사하는 공직자, 신의를 지키는 회사원 명량하고 질서 있는 시민들이야말로 건전한 나라의 주인이며 곧 민족과 국가의 명예를 높여 주는 진정한 애국자들인 것이다. 결국 나라의 명예는 그 나라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양되는 것이다.

내가 운명적으로 나일 수밖에 없듯이 나는 운명적으로 우리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나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나라를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행자가 비행기 안에서 쿠웨이트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가 쿠웨이트인인 것을 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당신네 나라처럼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러워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우리도 당신네 나라처럼 맑은물이 펄펄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원부족, 좁은 국토를 한탄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평화롭고 잘 사는 많은 나라가 반드시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아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기름 한 방울도 안나는 이토박한 땅에서 태어나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길 없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라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명예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 강토는 비록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다 받지 못했고 지금은 비록 분단된 국토이긴 하지만 조상의 얼과 혼이 곳곳마다 서려 있는 유서(由緒) 깊은 땅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힘 모아 땀 흘려 일한 댓가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던 수 천 년 이래의 가난에서 벗어나 당당한 중진국의 선두 주자로 이제 선진 조국을 눈 앞에 바라보게 되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우리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 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 도처에 한국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상품이 세계 시장에 넘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세계의 유수한 연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유능한 학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일본 사람을 게을러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민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은 1977년 6월 6일자 뉴스 위크 지의 한국 특집 그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인 그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지런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옆에 있으면 모두 게으름뱅이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상품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우리의 활동 무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넓혀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경멸하는 일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지금의 터전을 우리에게 물려 준 우리의 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순탄치 않았던 역사가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시험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경을 이기고 발전을 이룩한 업적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로, 우리의 민족을 나약한 민족으로, 우리 땅을 보잘 것 없는 황무지로 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